

남녀간의 우정, 그 미로 같은 오해와 환상

최윤 지음 「하나코는 없다」

87년에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레포트를 제출한 적이 있다. 그것을 계기로 계속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을 여음이 시작되던 기다리는 독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감정의 군더더기가 최대한 배제된 산뜻함과 형식의 뚜렷함 그래서 중국에는 묘한 여운을 남겨주는 단편의 매력도 이 책을 선택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이유일 게다.

어느 누구라도 지나간 시절 약간은 독특하게 다가왔던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군중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아주 조금만 존재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작은 실수같은 건 이해차원에서 눈감아 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늘 없는 듯 있고 객관적 시각에서 인간의 내심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94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에 등장하는 '하나코'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녀의 존재를 끈질기게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존재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자아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처럼 이 소설은 서글픈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들은 '하나코'를 현실에 존재시키기 보다는 그들의 알파한 정신적 나르시즘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것도

철학적이고 고상한 이성간의 우정이라는 환상으로 포장하고 또 일상생활에 적당하게 타협하고 포기하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코'라는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관념화된 틀을 하나씩 깨고 결국에는 사고전환 가능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라고 믿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 존재의 유무마저도 실상 서로들의 심스럽다.

작가는 치열하게 그들의 삶을 표현하지는 않았을지언정 '하나코'라는 익명의 여자를 등장시켜 삶의 존재양식에서 미로찾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집단 앞에서 '하나코'는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아니 바로 자기 자신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시키는 것이 아닌지.

그들은 미로에 갇혀 있는 것이 자신에게 더이상의 진로를 두려워하고 또는 포기한다.

이 소설은 첫머리부터 많은 것을 내포하는 듯하다. 인간사란 폭풍처럼 밀려드는 온갖 미로같은 어려운 길(인간상호간의 풀리지 않는 벽이라든지 현실적 집착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고통 등)을 걸어가야만 한다. 그렇다고 그 길을 피해간단든지 멈춰선다는 것은 삶의 포기나 마찬가지로 지어서 직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서 우리들은 미로를 뚫고 나가는 현명한 판단력도 배워야만 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사고의 미로를 과감히 뛰쳐 나올 수도 있어야만 한다.

비단 이 소설이 "우리 주변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부당하게도 정석이 되어버린 남녀 사이의 우정, 그 미로와 같은 오해와 환상에 대한 이야기"(중앙일보)라고 치부해 버리기엔 아쉬운 감도 없지 않다. 그들과 '하나코'가 자신의 미로속에서 진정한 내면을 찾는 후에 타인의 미로에 조심스럽게 다가설 수 있다면 어느 누구의 부재에도 두려움없이 각자의 존재 양식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신미향

부산시 동래구 거제1동 1465-4 동양APT 가동 608호

마크 프로스트 지음 「세븐」

팬찮은 추리소설이라면 강한 흡인력으로 광적인 독자들을 확보하면서 아울러 지적인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몹시도 무더웠던 올 여름을 지내면서 나의 더위를 식혀준 추리소설은 「세븐」(버팀목)이었다. 얼마나 경탄했는지 이 소설을 쓴 작가를 한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였다.

작가 마크 프로스트는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도 시리즈로 방영되어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던 「트윈 픽스」를 쓴 주인공이기도 하다. 「트윈 픽스」에서 작가는 주인공 쿠퍼 수사관이 금발 미녀 로라의 살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다뤘었다. 거기에 등장했던 심령술사는 「세븐」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난다. 이 소설에선 신과 악령의 세계를 주 모티브로 삼고 있어 악한 세력을 추방하려는 인간들의 노력을 박진감있게 느껴볼 수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을 뒷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이 소설은 한 형제이면서 각자 '어둠'과 '밝음' 편에 서서 신과 악령의 힘을 겨루는 스파크 형제의 이야기이다. '암흑의 주' 편에 선 알렉산더와 '신'의 편이자 인류를 악의 도가니에서 구하려는 책 사이에 끼어있는 의사 아서 코난 도일은, 자신이 작가의 시점이 되어 소설을 이끌어간다. 끊임없이 음해하고 도망치는 스파크 형제를 만나기 전 도일은 강령회에 참석해 달라는 한 여인의 편지를 받는다. 그가 참석하지 않으면 자신이 위협해진다. 암시의 편지로 인해 도일은 강령회에 나가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접한다. 뒤이어 자신을 빅토리아 여왕의 특별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는 책 스파크를 만나게 된다. 무척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지닌 책은 도일에게 이 사건이 단순한 것이 아니며 인간이 모르는 초자연적인 악한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한다. 책을 따라나선 도일은 자신이 쓴 「어둠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사악한 무리들의 표적이 됐음을 알아내고, 암흑의 주를 비롯한 그들의 세력을 없애기로 한다. 알렉산더를 추적하던 중에 그는 자신에게 강령회에 오도록

출판정보 회원사가 600개 문턱에
다가갑니다
출간 1년, 회원사 587구좌, 출판계
도우미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출판정보 8월 재계약률이 92%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8월에 가입한 123개 회원사 중 114개
업체가 다시 구독하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자료검색 DB프로그램을
무료로 드립니다.(10월 예정)

출판정보 1년 구독료보다 더 값나가는
정보. 그간의 고마움으로 9월 구독신청
하시는 분께 한정 서비스해 드립니다.

그의 필요하신 출판관계 자료는 이렇게
해드립니다.

언제라도 FAX서비스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화로 회원여부를 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도 출판정보를 모르신다구요!

주 2회 발행
국내 최초의 종합출판정보 서비스

주 2회 발행되는 출판정보에서
이런 정보를 잡을 수 있습니다.

【화요일】

◆국내 출판스크랩 정보

국내 60개 일간지의 출판관련 기사 스크랩 정보.(출판정보 데이터, 화제의 책, 저자정보, 출판경향 및 판매동향, 출판계 동향, 독자동향, 저작권 정보, 아동도서 시장정보, 출판정보 게시판)

◆기획정보

리서치&리서치, 발굴정보, 서울 대형서점·도매상 집계 베스트셀러, 신간정보, 기획칼럼, 출판정보 데이터(부디자이너, 기획프리랜서, 번역가, 교정·교열 전문가, 인쇄소 리스트 등), 잡지목차색인

【금요일】

◆국내 출판스크랩 정보

국내 60개 일간지의 출판관련 기사스크랩정보.(출판정보 데이터, 화제의 책, 저자정보, 출판경향 및 판매동향, 출판계 동향, 독자 동향, 저작권 정보, 아동도서 시장정보, 출판정보 게시판)

◆해외정보

미국, 일본 출판정보는 매주 제공.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출판정보는 주 1회씩 제공.

회비: 3개월 10만원/6개월 18만원/12개월 30만원

■「출판정보」의 정기구독은? ◆발간형식: 주2회 2권(매주화, 금) ◆판형 및 분량: 4*6배판, 매권 110여쪽 ◆연락처: 전화 271-0494/5 팩스 277-7301 ◆담당자: 최은선(편집기획팀) ◆발송방법: 택배 및 우편발송 ◆직접 책을 보고싶으시면 연락주시시오, 샘플북을 보내드립니다.

편지를 썼던 에일린을 만나 사랑하게 된다.

이 소설은 끝내 알렉산더와 그의 동생 잭이 라이첸바크 폭포에서 실종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그순간 암흑의 주가 깨어난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 독일과 잭이 추적했던 암흑의 주는 히틀러의 전신이었던 것이다.

「세븐」을 덮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주인공 독일과 에일린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자 헤어지는 내용이었다. 그러한 여운은 책을 오래도록 기억케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참이다.

이 소설을 읽고 경탄해마지 않았다고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작가의 치밀한 자료조사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소설 곳곳에는 작가가 조사한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의 분위기며, 악마주의적인 숭배와 주술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또 그러한 자료에 못지않게 작가 자신의 상상력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추리소설로서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배원자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산82번지

R.L.스티븐슨 지음 「보물섬」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책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품이 있다면 「보물섬」과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일 것이다. 그외에도 그의 작품에는 「납치」 「허미스틴의 독」 등이 있다.

얼마전에 무삭제 완역판으로 출간된 「보물섬」(도서출판 장락 출간)은 어릴 때에 동화라는 범주속에 들었던 작품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권말에 수록된 역사 김남경의 말처럼 동화가 아니라는 생각을 굳혔다. G.S. 프레이저가 말했듯 “온전한 이야기의 즐거움과 순수한 모험에 있어 「보물섬」을 능가하는 소설은 달리 없다”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소설을 읽으면서 오랜만에 어릴 때의 감흥이 되살아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러나, 만약에 무삭제 완역판을 어린시절에 읽었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만큼 이 소설은 묘사와 서술면에 있어 이전에 읽었던 「보물섬」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

권말에 수록된 해설대로 “평이한 문체로 씌어졌으며, 줄거리와 인물들이 문학작품의 표준양식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도 느릿느릿 전개되는 사건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잔뜩 지루함을 유발하는 이 문체는 정말이지 너무나 건조하다.

주인공 소년 짐 호킨스는 에드미럴 벤보라는 여인숙 주인의 아들로 등장해 사건의 발단에서부터 보물섬을 찾아가는 항해의 모험에 참여하고, 그 모험에 참여했던 많은 인물들의 최후를 기록하는 인물이다. 어느날 여인숙에

늙은 선장 빌이 수상한 껌을 끌고 나타난다. 뒤이어 그를 추적하던 장님 퓨가 일당을 끌고와 빌을 살해한다. 퓨 또한 말발굽에 치어서 죽는다. 이렇게 해서 짐 호킨스는 빌의 껌을 열게 되고 거기서 보물섬 지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후 짐 호킨스와 의사 리브지 선생, 외다리 롱 존 실버, 앵무새 플립트 선장, 마지막에 나타난 벤 건, 선장, 이스라엘 헨즈를 비롯한 해적선원들(나중에는 이들이 해적이었음을 알게 된다)이 배에 올라서 보물섬을 찾아 기나긴 항해를 떠난다.

작가가 이 소설에서 가장 치중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악의 매력적인 형태”라고 여겨진다. 그 형태에 딱 들어맞는 외다리 롱 존 실버의 악행은 지루한 짐 호킨스의 시선에 그나마 속도감을 부가하기도 한다. 실버의 배신행위는 독자들에게 혐오의 대상이긴 하나 그의 유머와 용기와 재빠른 융통성은 칭찬할 만하다.

소설은 실버의 악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작가가 유추해내고자 한 것은 선과 악의 대립, 그리고 대립으로 끝나지 않고 대립된 인물들끼리 화해를 함으로써 인간의 선을 실천코자 한 것이다.

앞서, 작가의 문체가 평이하다는 얘기를 했었다. 그러나 대담무쌍한 모험담을 서술하면서 작가 자신의 흥분을 가라앉히기란 더 힘든 일이 아닐까. 이쯤에서 그가 이러한 문체를 선택한 것을 심분 이해하기로 한다. 또 짐 호킨스의 눈을 통해 묘사되는 등장 인물들의 행동 기제와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은 한치의 과장도 없이 정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정말 무삭제 완역판이 틀림없을까”라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건 리브지 선생 일행과 벤 건이 결탁해서 보물들을 옮겨놓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나중에야 짐 호킨스는 리브지 선생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듣는 것이다. 왜 이부분을 건너뛰었는지, 언급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어릴 때 읽은 「보물섬」은 결말 부분에서 항해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그 보물을 나누어서 대부분 행복을 거머쥐었다는 얘기가 나온다(그중에 술만 퍼마신 벤 건이 파산했다는 얘기는 동일하게 들어있다). 그것도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말이다. 이 부분 또한 미진한 것 같다.

아무튼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의 드높은 공상과 모험심에 감탄했다. 행복을 거머쥔 인물들이 이제는 주인이 된 짐의 에드미럴 벤보 여인숙에서 벤건처럼 럽주를 들이켜고 있지 않을까 염려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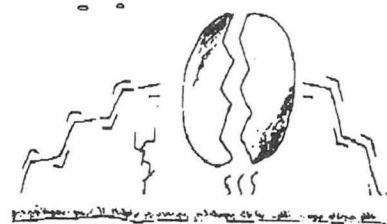
우정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26-15

“
살아 움직이는 손길

곧,
”

책장을 넘기는 순간입니다.



■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로 이채롭게 꾸며,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엮은 합철본을 새로 제작, 한층 자료가치를 높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출판저널합본호판매안내

- 합본1호(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날권31~40호) 5,000원(판매)
- 합본5호(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날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7호(날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8호(날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9호(날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10호(날권91~100호) 10,000원(판매)

* 구독의 불편·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서신등을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료는 합본제작비로 인해 수취인 부담관계로 직접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